

(주)타타대우모빌리티 기업사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은 “세계 속의 대우”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했다.

김우중 회장은 자동차 산업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차 분야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결실로 1995년 3월, 전북 군산시에 ‘대우상용차(주)’가 설립되었다.

군산공장은 총면적 1,108,000㎡ 규모의 부지에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상용차 전문 공장으로 완공되었으며, 연간 2만 대 이상의 트럭과 특장차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수준의 시설이었다.



‘기술입국’이라는 김우중 회장의 철학 아래, 대우상용차는 설립 초기부터 트럭·덤프·특장차 등 전 부문에서 독자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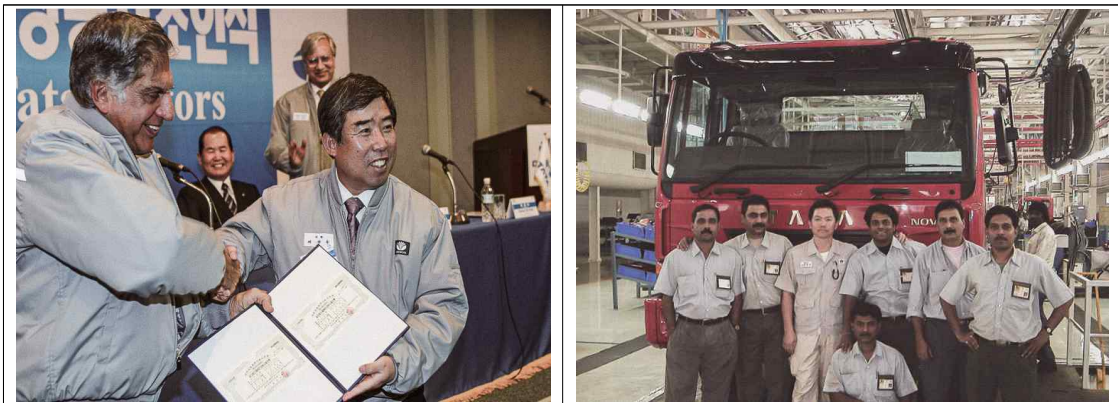
이후 ‘프리마(PRIMA)’, ‘노브스(NOVUS)’ 등 혁신적인 트럭 라인업을 개발하며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쌓아갔다.

대우상용차의 트럭은 “튼튼하고, 오래가는 차”로 불리며 전국의 물류와 건설 현장을 누볐다. 당시 대한민국의 급격한 산업 확장 속에서 대우 트럭은 산업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으며, ‘대우’라는 이름이 곧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대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대우상용차 또한 매출 급감과 수출 차질로 경영 위기를 맞았다.

그럼에도 군산공장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이 기업의 미래다”라는 김우중 회장의 신념 아래, 임직원들은 공장을 지키며 기술과 설비를 유지했고, 이 헌신은 훗날 회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2004년 3월, 인도 최대 자동차 그룹이자 글로벌 상용차 시장의 강자인 타타그룹(TATA Group)이 대우상용차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회사명은 ‘타타대우상용차(주)(TATA DAEWOO Commercial Vehicle Co., Ltd.)’로 변경되었다. 타타그룹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 라탄 타타(Ratan N. Tata)는 “대우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장인정신은 타타의 세계화를 완성시킬 중요한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인수 배경을 밝혔다.

그의 철학은 이후 현 타타그룹 회장 나타라잔 찬드라세카란(Natarajan Chandrasekaran)에 의해 이어지며, 양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타타그룹은 인수 이후 대우상용차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체계와 R&D 역량을 접목시켰다. 이를 통해 군산공장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로 차량을 수출하는 글로벌 상용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했다.

또한 ‘프리마’와 ‘노브스’ 라인업을 고도화하고, 2018년에는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신형 모델 ‘더센(THE CEN)’, ‘맥센(MAXEN)’을 출시하며 한국 상용차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생산 현장은 기술 혁신의 중심이었다.

군산공장은 로봇 용접, 자동 도장 시스템, 품질검증센터를 도입해 글로벌 생산 표준을 정립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트럭을 잇달아 선보이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타타대우상용차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기술교육 협력,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내 대학 및 직업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상용차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 지역의 핵심 산업 기반으로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1년, 회사는 사명을 ‘타타대우모빌리티㈜(TATA DAEWOO MOBILITY)’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상용차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타타대우모빌리티는 전기트럭, 수소연료전지트럭, 자율주행 물류 플랫폼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타타그룹 본사의 지원 아래,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한국형 미래 상용차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군산공장은 타타그룹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 연간 수천 대의 트럭과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6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제품군은 덤프, 트랙터, 믹서, 냉동탑차, 군수지원차량 등으로 다양하며,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차량 개발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이다.

타타대우모빌리티의 기업 철학은 “사람과 산업,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신뢰의 힘”이다. 이는 단순한 차량 제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이동(Sustainable Mobility)을 실현하는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빅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 등으로 기술 중심의 혁신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타타대우모빌리티는 대한민국 상용차 산업의 역사이자, 세계 속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군산의 대표 기업이다.

‘도전과 변화’라는 김우중 회장의 정신, 그리고 ‘글로벌 상생’이라는 타타그룹의 철학이 만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달리는 기업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